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2022. 6. 15 (수)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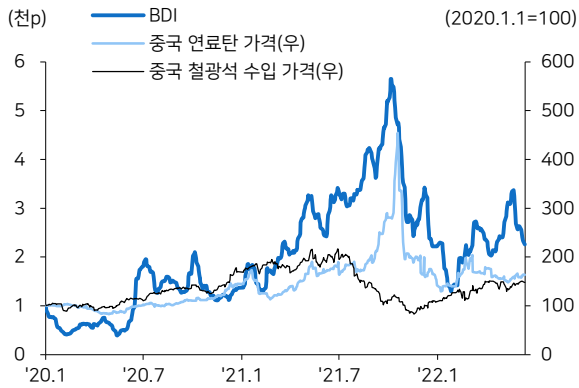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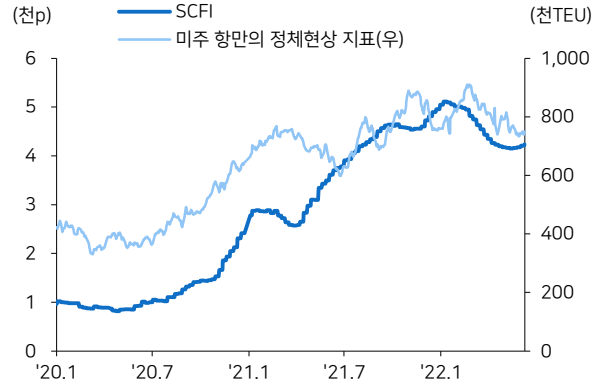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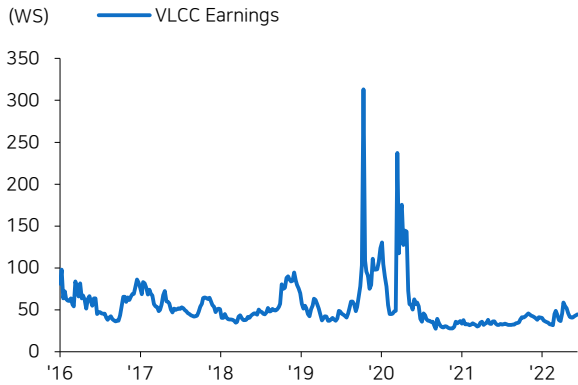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84.0p(+2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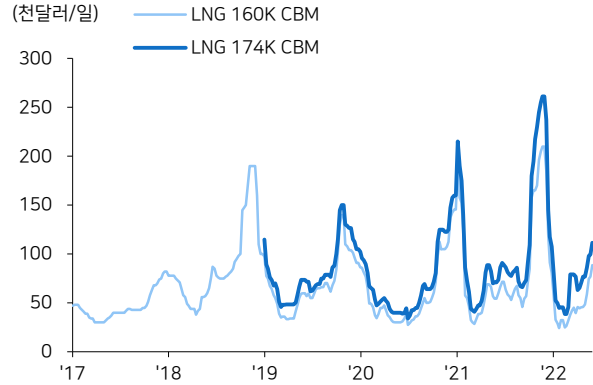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33.3(+25.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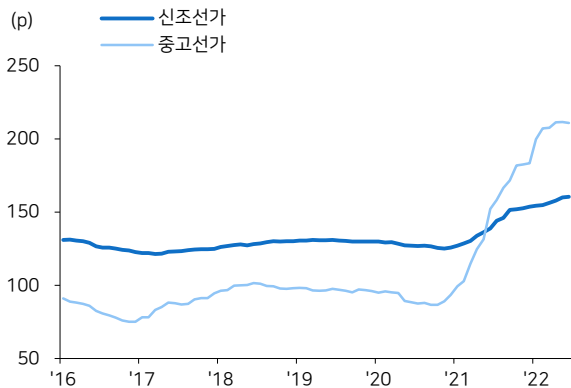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4.8p(+1.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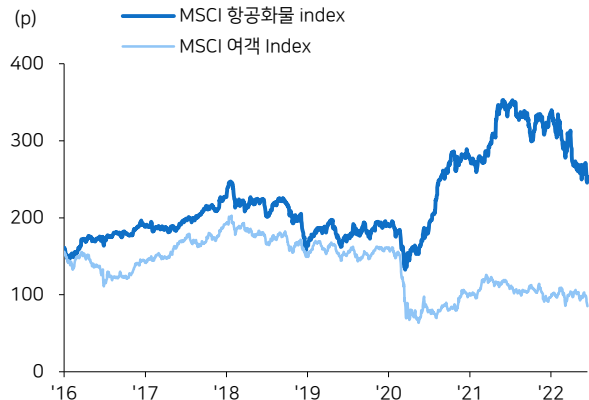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97.5p(+9.0p WoW)
120.0p(+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4p(+0.3p WoW)
210.9p(-0.7p WoW)



항공시장 지표 253.5p(+8.1p DoD)
85.0p(-2.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kraine restarts grain shipments using Baltic back door

우크라이나가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곡물 수출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옥수수 18,000톤을 Baltic항구에서 스페인 A Coruna항구로 수송했다고 알려짐. 러시아의 흑해항로 차단을 피한 새로운 항로로 알려짐. (Tradewinds)

Freeport LNG warns of long wait for full operations after fire

화재사고가 있었던 텍사스 Freeport LNG 터미널이 연말까지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됨. 기존 예상되었던 3주보다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유럽 LNG 공급에 더 큰 차질이 생김. 업체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가동은 약 90일 뒤, 전체 가동은 연말쯤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한편, 최근 몇주간 Freeport 터미널은 유럽 총 LNG 수입량의 10% 정도를 담당해왔다고 알려짐. (Tradewinds)

Strikes in Germany add to congestion woes at northern European ports

북유럽 컨테이너 피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독일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항만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6월 9일 파업으로 함부르크, 브레머하븐, 엠덴, 브레멘 등 항구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킨 바 있음. 로테르담, 엔트워프는 이미 항만정체를 겪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에 이어 독일 노조파업으로 정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Dry bulk spot market bounces after falling steadily to two-month low

벌크선 운임이 2주간의 하락세 이후 화요일(14일) 반등했다고 보도됨. 24p 상승한 2,284p를 기록함. 대서양 위주의 몇몇 Capesize 선약체결로 Capesize 5TC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Tradewinds)

값싼 러 에너지에 길들여진 유럽...일부 공장 문 닫을 판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오던 유럽 공장이 최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일부는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보도됨. 2021년 기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40%에 달하던 유럽은 이제 안정적인 수급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현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보다 3배 높음. (연합뉴스)

택배업계도 파업 전문..."연합 총파업 할땐 택배대란 초래"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본부가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보도됨.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월요일 부분파업을, 한진택배 노조도 토요일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차질도 발생했다고 알려짐. (뉴스1)